

백년의 향기

천주교 대구대교구
100주년 뉴스레터

교구 100주년 공식 웹사이트
www.100-years.or.kr
100주년 트위터
twitter.com/renew2011
100주년 페이스북
www.facebook.com/renew2011



천주교 대구대교구 100주년
다시 새롭게 2011·새 시대, 새 복음화

두번째 소식

요즘 세상에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복음의 진리는 영원불변이지만, 세상인심은 세월 따라 바뀝니다. 종교를 구속이나 걸치레로 여기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릴 수 있겠습니까? 이 숙제는 믿는 사람들이 늘 궁리해야 하는 것이지만, 특히 100주년을 맞은 우리에게 가장 중대한 숙제입니다.

천주교 신자다운 생활을 배우고 실천해야 합니다.

주님도 따르고 세속의 욕심도 채기는 어중간한 신앙으로는 현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말로나 머리로만, 오락가락하는 감정으로만 이루어진 믿음이 아니라, 매일 실천해서 몸에 익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말만 듣고는 믿지 않는 이들도 우리의 행실을 보고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너도 가서 그렇게 하여라.”

주님께서 당신처럼 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행실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이 이 고장에 나타나는 것, 이것이 새 시대의 복음화입니다. 우리의 인품이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뽑아 세우신 주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영성체할 때마다 주님과 한 몸이 되는 큰 은혜를 받는 것은 바로 주님을 조금이나마 닮게 되어 사람들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여 주라는 부르심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보지도, 그분의 음성을 듣지도 못한 이들에게, 가난하게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위로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기 위해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시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부르시지만, 이 부르심은 100주년을 맞은 우리 마음에 특히 크고 뚜렷하게 들려옵니다. “너도 가서 그렇게 하여라.”(루카 10,37)하고 말입니다.

정태우(아우구스티노) 신부

3,500명이 참여하여 주님과 복음을 노래할 청소년 잼 페스티벌



대구대교구 100주년을 맞아 교구 청소년 3,500명이 한자리에 모여 신앙생활을 새롭게 다지는 행사가 열린다. 교구 사목국 청소년 담당(전재현 신부) 주관으로 5월 14일(토) 성김대건기념관 및 성모당에서 열릴 잼(JAM, Jesus And Music) 페스티벌은 교구 내 중고등부 학생들이 음악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축제한마당이다.

지난해까지는 순수한 축제였으나, 올해는 대구대교구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대리구별 예선을 거쳐서 두팀만 본선에 진출하는 경선 방식이 도입되었다. 젊은이의 복음화를 위해 준비된 잼 페스티벌은 3월13일부터 본당별로 참가 접수를 받으며, 26일부터 대리구별 예선을 갖는다.



	시 간	내 용	장 소
1부	13:00~14:30	JAM festival 본선	성모당
2부	15:00~17:00	대주교님과 함께 드리는 미사	성김대건기념관
	17:00~18:00	저녁식사	
3부	18:00~20:00	PBC "신신우신" 공개방송	

100주년 준비 일모

성모당 순례 미사

대구대교구는 100주년을 앞두고 영성운동의 일환으로 각 본당별 성모당 순례 미사를 드리고 있다. 성모당은 로마의 성모대성전과 영적 유대 관계를 맺고 있으며, 순례미사는 지난 2010년 4월 13일 가실성당으로부터

시작되어 오는 5월 6일 대구 신서성당을 마지막으로 끝이 난다.

서준홍 (마티아, 성모당 담당) 신부는 "대구대교구 100년사에서 가장 역사적 의미가 깊은 성모당에서 기도와 은총을 구하고, 교구 역사를 이끌어왔던 주교님들과 신부님들이 묻혀 계신 성직자 묘지 방문에 더 많은 교우들이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한다.

100주년 기념 성모당 순례 미사 일정

일월	1(화)	2(수)	3(목)	4(금)	5(토)	6(일)	7(월)	8(화)	9(수)	10(목)	11(금)	12(토)	13(일)	14(월)	15(화)	16(수)	17(목)	18(금)	19(토)	20(일)	21(월)	22(화)	23(수)	24(목)	25(금)	26(토)	27(일)	28(월)	29(화)	30(수)	31(목)
2월										진량				현풍	지곡·천부	청도				초전	칠곡	침산	큰고개								
3월	태전	평리	평화	화양				해평·장천	현풍	형곡	화원				대구활금	황성	효목	효자				흥해	상동	성김대건				고산	범어	노원	
4월					비산	내당	소화	대명				봉덕	토마스	지산	감삼										정하상	성안트레아	매천	금호			
5월	마침내		무태	신서																											

인류가 오늘같이 문명을 누리는 것은 앞 시대의 경험을 전수받기 때문이다. 오늘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제도 등은 길게는 몇 백년에 걸쳐 수없이 실패하면서 체득해 온 산물이다. 대구대교구도 백년을 이어오면서 이를 정리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었다.

100년의 고리

100년을 엮어 나온 책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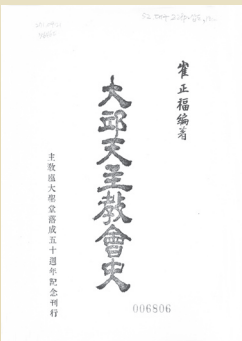
1936년 행사

1936년은 특이한 해였다. 교구 창립 25주년이며, 드망즈 주교 서품 은경축이었다. 또 계산성당 본당 설립 금경축이었다. 이를 함께 기념한 행사는 아주 성대해서 '대구에 양대 축하, 성황은 예상이상으로' (『경향잡지』 1936년 30-823호)로 이루어졌다.



김구정의 『영남순교사』와 마백락의 『경상도교회와 순교자들』

이때 교구에서는 교구 25주년을 기념하여 『교구연혁』을 편찬했다. 이 기념대회의 총무였던 최정복은 주교좌 성당 50년 기념으로 『대구천주교회사』를 펴냈다. 이후에도 교구의 역사를 정리하려는 노력들이 이어졌다. 김구정은 1966년 『영남순교사』를 엮었다. 아마도 복자 탄생에 대한 준비였던 것 같다. 1980년대 교구에서는 교구 80주년을 기념하는 『교구화보사』와 『교구사연표』를(1984), 계산성당에서는 『계산성당 100년사』를(1986), 마백락은 『경상도교회와 순교자들』(1989)을 엮었다. 이 책들은 오늘 100년을 되짚어 보는 역사의 징검다리이다. 이 노력들을 바탕으로, 더 탄탄하고 정확한 100년사가 쓰여질 것이다.



대구천주교회사와 저자 최정복

김정숙 (소화테레사)

교구100주년 기념 경축대회 일정

	5월7일(토)	5월8일(일)	5월9일(월)	5월10일(화)	5월11일(수)	5월12일(목)	5월13일(금)	5월14일(토)	5월15일(일)
오 전	전시회(오전)		전시회						100주년 감사미사
오 후	바자회·박람회·다문화축제		청년행사	초청강연회				성경암송대회	
저녁			청년행사				자매협력교구 행사	청소년 행사	

백년을 사는 사람들

오래된 시골 본당의 새성전 건립에 전 재산(15억)을 익명으로 봉헌한 형제님의 아름다운 향기는 바람결에 실려왔다. 가만히 있어도 피어오르는 형제님의 향기는 평생 모은 돈을 새성전 건립에 봉헌했다고 나는 것만은 아니었다. 내년이면 희수(77세)를 바라보는 형제님의 삶에서 뿜어져 나오는 신앙의 향기가 아름답다.

고학 시절, 신자로부터 감화받아

형제님은 고학으로 현재 하는 일의 자격을 획득했다. 고학 시절, 집주인은 독실한 천주교인이었다. 일하는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고 인격적인 대우를 하는데 감동받았다. 신자답게 산 교우가 사람 낚는 어부 역할을 한 것이다. 형제님은 원래 갖고 있던 종교 대신 가톨릭을 받아들였다. 천주교 신자가 된 형제님 삶의 중심에는 항상 하느님이 자리잡고 계셨다.

내 주머니, 하느님 주머니

40여 년 전 천주교인이 된 이래 지금까지 형제님은 쓰고 남는 돈이 아니라 아예 하느님 몫을 먼저 떼어놓고 생활한다. 번 돈은 2개의 주머니로 갈랐다. 하나는 생활비 주머니, 또 하나는 하느님 주머니였다. 검소하게 살면서 하느님 덕분에 번 돈을 고스란히 모았다.

헛돈, 시간 낭비 몰라

세상천지에 볼거리, 즐길거리, 누릴거리가 널려 있지만 눈길 한 번 주지 않는다. 술, 담배는 물론, 바둑, 춤, 당구도 전혀 모른다. 미사에 참례하고, 성경 읽고, 봉사하고, 기도를 드리는게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친인척이나 이웃과의 사귀는 활발하다. 이처럼 45년간 계속된 형제님의 절제된 신앙생활은 주변사람들을 감화시켰다.

친인척 모두가 영세 입교

신자답게, 하느님 보기에 부끄럽지 않게, 진솔하게 사는 모습에 감명받은 형제님의 형님댁, 처갓집, 아들네, 사돈집안 모두 신앙 안에 하나가 되었다. 아들들은 아버지의 든든한 후원자다. 형제님이 새 성전 건립을 위해 전 재산을 쾌척했을 때, 장남은 성전의 의자를, 차남은 봉헌금을 기부하였다.

하느님만 아시면 되지

“기도할 때는 골방에서 하고, 단식할 때는 머리 빗고 하고, 오른 손이 한 것을 왼 손이 모르게 해야 한다”는 형제님은 세상에 이름이 알려지면 45년 신앙생활이 수포로 돌아간다면 자신을 드러내기를 극구 사양하였다. 그래서 이번 <백년을 사는 사람들>의 주인공은 이름도 사진도 없다. 하지만 형제님은 외친다. “신자가 되었으므로 행복하였노라”.

최미화(글라라)